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시드니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현지 체류정보	01
II. 호주 개황	05
III. 호주 경제 무역동향	08
IV. 기타 정보	23
※ 현지 주요 연락처	27





I. 현지 체류정보

1. 비자 및 출입국 유의사항

□ 비자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산비자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ETA는 전산 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AU\$10,000(US\$7,500)이상의 현금 휴대 시 공항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 필요
- 통관 중 입국신고서에 미 신고한 품목 적발 시 벌금(약 US\$150)이 부과
-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
 - 포장 과장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중요). 입국 수속의 지연 및 벌금 부과 가능
- 골프화(운동화)를 지참할 경우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표기해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기후 및 시차

□ 기후

-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함.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임.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음.

□ 시차

- 한국과의 시차
 - 1시간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8시)
 - 2시간(일광절약시간)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첫 일요일까지(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7시)
 - 퀸즐랜드 주의 경우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시차가 변동되지 않음.

3. 환전

□ 환율 및 환전

- AU\$ 1 = 852.21원 수준 (2017.5.2. 기준)
-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며, 공항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할 경우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전 금액이 클 경우 필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며, 환전 창구에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

증으로 요구하니 여권을 준비해야 함. 호주 현지에서 원화는 환전할 수 없음.

4. 공휴일(2017년 기준)

□ 호주 공휴일 (시드니)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시드니가 소재한 NSW주의 2017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17
설날 (New Year's Day)	1월 1일 일요일
추가 휴일 (Additional Day)	1월 2일 월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Day)	1월 26일 목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14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15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16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17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4일 화요일
여왕 탄생일 (Queen's Birthday)	6월 12일 월요일
은행 휴일 (**Bank Holiday)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8월 7일 월요일
노동절 (Labour Day)	10월 2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월요일
복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화요일

자료원: 호주 주정부

5. 체류 시 유의사항

□ 복장

-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임. 여름은 12월에서 2월 사이이며 한국 여름과 달리 고온 건조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호주의 태양 광선은 아주 강하므로 4계절 모두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품임. 겨울의 경우는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이 불어 밤과 이른 새벽은 한국 초겨울만큼 추우므로 한국에서 입는 겨울옷이 도움이 됨.

□ Tip

-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팁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됨.

□ 전압

- 240V, 50Hz의 전기 규격 사용. 콘센트 구멍이 3개(Y타입)로 되어 있어 한국 전기 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외국으로 전화 거는 법

- 일반전화: 호주에서 외국전화시 0011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시작
- 수신자부담전화
 -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 호텔사용시: 0 ▶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II. 호주 개황

1. 일반 개황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행정구역	6州(state) 2準州(territory)
수 도	캔버라
주요 도시	시드니(492만명), 멜버른(452만명), 브리즈베인(230만명), 퍼스(203만명), 아델레이드(131만명)
인 구	2,362만명
민 족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5%)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천주교(25.3%), 영국성공회(17.1%), 불교(2.5%), 이슬람교(2.2%) 등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Malcolm Turnbull 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 2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연립당 Malcolm Turnbull이 29대 총리로 연임

2. 정치 사회 현황

□ 정치 체계 및 현황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16년 7월 2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말콤 턴블 총리가 노동당을 이끄는 야당 대표 빌 쇼튼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 자유당과 국민당으로 이뤄진 보수 야당연합(자유연합)이 총 150석에 달하는 하원 의석 중 최소 76석을 확보했고, 노동당은 69석을 차지하는 데 머무름.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 사회 현황

○ 호주 정부, 아시아 중시 정책

- 호주 정부는 2012년 10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며 아시아 백서(Australia in the Asia Centuries)를 발표함.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6대 전략 파트너로 선정하였으며 TCC, RCEP 등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타 문화권과의 갈등

- 호주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호주사회에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인종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저고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주류 문화인 서구 기독교사회를 적대시하는 이슬람과 같은 특성이 강한 문화권에서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인한 사회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Ⅲ. 호주 경제 무역동향

2. 경제 동향

□ 호주 경제의 특징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 1차 산업 위주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5%를 차지
 - 부동산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 의료 등 발달

<호주의 산업별 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GDP 비중	2.4%	7.4%	6.4%	8.7%	75.1%

자료원: 호주무역투자진흥처(2017.1),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7

- 광물자원 가격의 회복으로 당분간 관련 제품 수출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 매장량 4위(9.0%), 생산량 4위(4.7억톤)
- 철광석 : 매장량 1위(29.0%), 생산량 2위 (4.8억톤)
- 원유 : 매장량 42억 배럴(0.3%), 세계 24위
- 천연가스 : 매장량 12위(2.0%), 수출 25억불
- 매장량 세계 1위 : 금(17%), 우라늄(29%), 니켈(23.0%)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희토류(매장량 4위) 등

자료원: Austrade,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15

○ 동부 해안 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인구의 77%, GDP의 73% 점유

구 분	NSW	VIC	QLD	기 타
GDP 비중 (인구)	32% (725만명)	22% (606만명)	19% (484만명)	27% (547만명)

자료원: 호주통계청

□ 최근 호주 경제동향

○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 성장 지속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7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지난 15-16년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될 것이라 예측함. 호주중앙은행(RBA)에서 발표한 2017년 4월 5일 기준 호주 경제성장률은 2.4%임.
 - 정부의 통화확장정책 및 1.5%의 낮은 금리와 부동산 건설 붐이 호주의 2016년 경제 성장을 견인함.
 -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천연가스, 철광석 등 광물 자원 분야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호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 모색

<호주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항목	OECD		The Treasury		NAB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경제성장률(%)	2.7	2.6	2.5	2.5	2.3	2.4
민간소비(%)	2.7	2.6	3.0	3.0	2.7	2.3
소비자물가(%)	1.3	1.8	1.25	2.0	0.75	0.70
실업률(%)	5.7	5.5	5.75	5.5	5.7	5.7
AS/US 환율	-	-	-	-	0.70	0.70

자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11), 호주재무부(The Treasury 2016.5), 호주네셔널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NAB 2016.12)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호주경제에 다수의 위협요인 잠재
 - 최근 석탄,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자원 분야의 고용, 투자 등은 향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호주 국내 원자재, 특히 가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미 침체기에 있는 현지 제조업들이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일부 현지 제조 공장은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시장으로의 이전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위기는 호주 경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내부 환경 위협요인
 - 호주중앙은행(RBA) 에서 발표한 2017년 4월 5일 기준 호주 경제성장률은 2.4%이며 지난해 4분기 실제 경제 성장률은 1.9%, 연평균 성장률은 2.6%인 것으로 집계

<2013-2017 호주 GDP 성장률>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률(%)	2.1	2.7	2.4	2.6	2.4

자료원: IMF,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호주 GDP 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원: Trading Economics

○ 부문별 동향

- 2017년, 민간소비심리 지속 위축 전망

- 2016년 하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6년 12월 이후 다시 100이하로 떨어져 계속해서 위축세 지속
- 제조업 철수의 여파로 인한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으로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낮아짐.
- 2016년 10월 102점대까지 회복했던 민간 소비심리는 불과 2개월이 지난 12월 97.3으로 하락함. 그러나 2017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7년 3월에는 99.7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소비자 신뢰지수 : 103.3('14.1)→ 91.1('15.1)→ 97.3('16.1)→ 97.4('17.1)→ 99.7('17.3)

- 주요 수출시장 경제둔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지속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 실시, 2016년 7월 금리를 1.75%로 인하한데 이어 2016년 8월 추가 금리 인하를 실시, 현재 1.5%의 역대 최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
- 이는 호주중앙은행(RBA)가 설립된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임
- 다수의 호주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7년에도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그러나 위에 나타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이 지속될 시 금리가 또다시 인하 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음.

* 금리추이 : 2.50%('14.1)→ 2.50%('15.1)→ 2.25%('15.2)→ 2.00%('16.1)→ 1.75%('16.5)→ 1.50%('16.8)→ 1.50%('17.5)

<호주 금리 변화 추이>



자료원: Trading Economics

- 호주달러 가치 약세 전망
 - 지난 1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
 - * 미화대비 호주달러화 추이 : 60%(2004)→ 110%(2012-13)→ 90%(2014)→ 70%(2015-17)
 - 2013년 1.02~1.04 미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던 호주달러는 0.7선이 붕괴되는 등 큰 약세를 보였음.
 - 2016년 1월 0.69 미달러까지 하락한 호주달러는 2017년 1월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5월 현재 0.75 미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호주 1\$ 대비 US\$ 가치 : 0.8912('14.1)→ 0.8127('15.1)→ 0.7223('16.1)→ 0.7579('17.1)→ 0.7486('17.5)
- 호주의 서비스업 활성화로 실업률 회복 조짐
 - 제조업 및 광산업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 초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하였지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로 2016년 중반부터 5.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실업률 추이 : 5.9%('14.1)→ 6.4%('15.1)→ 6.0%('16.1)→ 5.8%('17.1)→ 5.9%('17.4)
 - 호주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관광업 발달, 호주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교육 서비스 증대, 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분야 발달 등 서비스 분야 활성화에 따라 실업률 회복 조짐
 - 향후 자본 중심의 광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차츰 실업률 하락이 예상됨.

3. 무역 동향

(1) 호주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 지난 5년간 지속 감소
 - 호주의 2016년 전체 교역은 3,795억 달러로 '15년 대비 2.19% 감소
 -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 6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079	4,853	4,675	3,880	3,805
1	중국	1,219	1,362	1,275	1,070	1,042
2	일본	695	635	585	446	410
3	미국	385	327	340	325	304
4	한국	308	283	285	244	208
5	태국	156	157	144	134	13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출입 동향

- 호주의 수출은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 말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비 1.3% 증가
- 수입은 2012년을 정점으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11.9%의 낙폭을 보임. 2016년에도 전년대비 수입이 5% 축소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줌.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7.6% 이상 큰 폭으로 감소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US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2,571	2,526	2,399	1,876	1,902
수입	2,508	2,327	2,277	2,003	1,892
무역수지	63	199	122	-127	1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 품목

- 호주는 2015년, 광물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10대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광물성 연료, 광물, 알루미늄, 구리 및 화합물은 전년 대비 15~30% 이상 다소 높은 감소율을 보임.
- 2016년 하반기 원자재 가격의 회복으로 광물 및 광물성 연료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귀금속류 역시 25% 이상 크게 증가한 품목 중 하나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품 목	2015		20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광물성 연료	47.9	-34.1	49.2	2.7
2	광물	47.3	-25.7	48.5	3.7
3	귀금속류	12.6	-9.9	15.8	25.3
4	육류	9.8	-5.3	8.1	-16.5
5	곡류	6.4	-13.0	5.0	-21.5
6	핵 반응기계	5.1	-10.8	4.8	-6.0
7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5.4	-5.7	4.5	-16.8
8	특수지정상품	4.4	-13.9	4.5	1.3
9	알루미늄	3.4	-15.3	2.8	-15.1
10	광학 및 의료기구	2.7	-3.7	2.8	4.2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

- 2016년 철강 구조물 및 광물성 연료 등 19~40%의 큰 하락을 보인 품목이 있는 반면 호주 자동차 제조공장의 본격 폐쇄와 FTA발효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수입이 5% 가량 증가, 귀금속류와 같이 40% 이상 수입 증가율을 보인 품목도 있음.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품 목	2015		20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핵반응 기계	31.8	-6.0	27.2	-14.2
2	자동차	24.9	-4.9	26.2	5.4
3	전자기기	20.5	-7.4	20.1	-1.8
4	광물성 연료	21.8	-39.5	17.5	-19.5
5	광학 및 의료기구	7.7	-7.1	7.8	1.2
6	의약품	7.2	-14.7	7.7	7.5
7	귀금속류	5.3	-11.0	7.6	43.6
8	플라스틱 구조물	5.4	-6.4	5.3	-1.0
9	가구	4.4	-0.9	4.2	-2.2
10	철강 구조물	6.9	4.1	4.1	-40.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17년 3월 대 호주 수출은 2,15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8% 상승, 수입 4,894백만 달러로 31.5% 증가, 무역수지 2,739백만 달러 적자

(단위 : 백만US달러, %)

구분	2015	2016	2017.3
수출	10,830(5.3)	7,501(-30.7)	2,155(18.8)
수입	16,437(-19.5)	15,176(-7.7)	4,894(31.5)
무역수지	-5,607	-7,675	-2,739

주 : 2016년도 수출 하락은 대 호주 수출 품목 2~4위인 경유, 휘발유, 제트유및등유, 철 구조물의 수출이 각각 45.3%, 30.0%, 48.0%, 84.0%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국제 유가 회복세에 따라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 증가, 수송 기계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은 감소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2017.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경유	1,150	-37.0	517	183.4
2	승용차	1,870	11.7	397	-16.9
3	휘발류	1,011	-26.5	310	26.8
4	제트유및등유	511	-24.5	182	106.1
5	축전지	101	9.2	46	104.0
6	기타석유제품	46	-26.5	41	227.7
7	칼라TV	121	55.5	33	-4.4
8	합성수지	116	-5.4	32	32.5
9	자동차부품	166	-13.9	31	-29.6
10	화물자동차	137	2.8	24	-53.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광물자원가격의 회복으로 관련 제품 수입 전반적으로 증가. 천연가스(Gladestone 플랜트 선적 개시), 가축육류(FTA효과) 수입 확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2017.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3,705	-14.5	1,375	71.6
2	천연가스	1,780	85.4	921	58.8
3	철광	2,837	-14.5	841	35.4
4	가축육류	1,162	2.0	352	13.2
5	당류	674	59.5	207	41.2
6	알루미늄피릿스크랩	808	5.6	195	-3.1
7	기타금속광물	350	-12.0	129	70.2
8	원유	520	-45.9	105	-49.1
9	아연광	276	-20.0	93	42.7
10	곡류	298	-17.9	81	18.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4. 투자 동향

(2) 호주 투자 동향

□ 투자유치 현황

- 지난 5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15년 투자 유치 금액 7,354억 달러, 전년 대비 470억 달러 증가
 - 가장 최근 발표된(2016년 5월)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 누계액은 미국이 1,735억 호주 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룸. 단, 호주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 유치액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가 정확한 것은 아님.

<2013-2015년 국가별 호주 직접투자(누적치)>

(단위 : 백만AU달러, %)

순위	국명	2013		2014		2015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	미국	144,870	23.7	163,410	23.7	173,530	23.6
2	일본	64,366	10.0	66,124	9.6	85,949	11.7
3	영국	87,617	13.8	87,374	12.7	76,042	10.3
4	네덜란드	29,094	4.7	38,438	5.6	44,444	6.0
5	중국	23,354	3.3	29,970	4.4	35,171	4.8
6	싱가포르	23,334	4.0	28,049	4.1	28,800	3.9
7	캐나다	16,755	2.6	23,580	3.4	25,883	3.5
8	UK버진제도	N/A	N/A	N/A	N/A	N/A	N/A
9	독일	13,488	2.2	15,760	2.3	17,235	2.3
10	스위스	19,360	3.0	19,020	2.8	7,939	1.1
11	한국	2,939	0.5	3,152	0.5	3,097	0.5
-	기타	194,143	30.8	203,875	27.9	237,404	32.3
	합계	629,941	100	688,376	100	735,494	100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6.5)



□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 원자재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광산업이 총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의 38% 차지
 - 호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은 1차 산업으로 지속된 광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 그 뒤를 제조업이 13%, 금융서비스업이 10%로 뒤따름.

<2013-2015년 국가별 호주 직접투자(누적치)>

(단위 : 백만AU달러, %)

업종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45,402	587,270	633,397	688,376	735,494
1차 산업	177,140	207,430	236,056	265,976	296,649
농림수산업	624	1,238	1,372	1,311	1,621
광업	176,516	206,192	235,684	264,665	295,028
2차 산업	99,454	102,089	100,457	101,486	99,025
제조업	90,237	90,395	88,637	88,139	85,929
전기.가스.수도	9,217	11,694	11,820	13,347	13,096
3차 산업	267,428	276,828	295,428	320,462	253,903
건설업	14,264	15,399	16,699	18,941	17,490
유통업	50,364	54,772	59,213	63,004	52,385
숙박요식업	6,415	6,229	6,655	8,088	7,287
수송및보관업	12,307	12,268	12,282	13,571	20,450
정보통신	27,359	27,669	27,344	24,647	25,043
금융 및 보험업	57,377	59,291	62,884	66,894	59,555
부동산업	26,383	28,394	33,751	47,697	64,027
전문,공학,기술업	3,451	3,684	3,454	3,777	4,645
행정지원서비스업	2,134	2,138	2,429	1,521	1,242
행정	np	np	np	np	np
교육	-	-	-	-	np
보건 및 사회활동	-81	204	2,044	3,818	1,779
예술 및 오락	np	np	np	np	np
기타서비스	67,455	66,780	68,673	68,504	np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6.5)



(2)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대 호주 투자

- 2016년 한국의 대호주 투자신고는 총 110건, U\$15.9억을 기록
 -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에너지/자원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신고기준 광업 U\$657백만(41.3%), 운수업 U\$543백만(27.8%), 금융 및 보험업 U\$180백만(1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U\$160백만(1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U\$21백만(1.3%) 순

- 한국의 대호투자 누계('68-'16.12)는 신고기준으로 1,697건, U\$192억
 - 업종별로는 광업 U\$14,618백만(75.8%), 부동산 및 임대업 U\$2,118백만(10.9%), 제조업 U\$695백만(3.6%), 운수업 U\$634백만(3.3%) 순

<한국의 대 호주 투자 추이>

(단위 : 천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8	135	52	652,716	579,598
2009	122	33	1,250,931	265,740
2010	107	36	766,338	563,960
2011	90	31	4,141,903	1,381,770
2012	78	24	4,406,856	2,234,202
2013	79	23	1,715,306	2,666,760
2014	66	11	806,578	1,497,498
2015	68	13	657,540	868,031
2016	110	32	1,592,021	839,272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대 호주 진출기업은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38개사 진출

☞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 자원개발기업 : 포스코, 한전, SK 네트워크 등
-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현대 종합상사
- 공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 현지판매법인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한전선, LS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농심 등
- 서비스업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 호주의 대 한국 투자

- 2016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총 45건으로 신고기준 U\$ 7,915만 기록, 전년 대비 하락
-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투자 신고 45건 중 금융, 부동산, 물류, 유통 등 서비스 업종이 39건을 차지해 약 86.6%를 차지
- 2015년 호주 해외직접투자는 미국(19.4%), 영국(15%), 뉴질랜드(11.2%), 싱가포르(3.9%) 등 영어사용국에 50% 가까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0.25%에 불과
- 신고금액이 높은 '14년의 경우, 호주 온라인 중고차 중개업회사인 Carsales의 1억 1.8천만달러의 신고가 전체 신고의 약 84% 차지

<호주의 대 한국 투자 추이>

(단위 : 천US달러,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건수	33	24	25	27	21	24	31	45
신고금액	224,515	7,008	90,889	152,569	50,282	139,833	85,193	79,157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62-'16)는 신고기준으로 565건, U\$2,510백만
 - 호주의 대한 투자는 Macquarie Bank, Pepper Group과 같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기반의 취약으로 Green Field 투자는 미미

- 對韓 투자에 대한 관심 저조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해외직접투자는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투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서서히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호주의 전반적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對韓 투자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2014년 12월 한-호 FTA 발효됨에 따라 특히 금융,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對韓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IV. 기타 정보

□ 호주의 역사

- 유럽인 출현 이전
 - 최초의 호주 원주민 (Aborigine/애보리지니)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대륙과 가깝게 근접하였던 최소한 6만 년 전부터 살아온 것으로 알려짐. 호주 원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몇 백 개의 소규모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됨.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만 해도 호주 원주민들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나, 미국의 인디언 등과는 달리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1788년에는 백인이 호주의 주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1800 ~ 1900년
 - 17세기 초 화란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님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A. PHILLIP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배해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1901년 이후 (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CANBERRA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에는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에 OECD에 가입되었으며 1975년 파푸아 뉴기니아가 호주에서 정식 독립되고 2016년 7월 2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연립당 Malcolm Turnbull이 29대 총리로 연임.

□ 시드니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 1950년대초 한 시민모임에서 시드니에 무대예술센터를 짓도록 주정부에 종용 당시 죠셉 카힐 주 수상은 그들의 의견에 동감, 공사를 위한 기금모금을 시민에 호소. 당초 예상건축비는 7백만 달러이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오페라 하우스복권 발행, 1975년 7월에 공사비에 전액 상환.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월 완공됨.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 가량의 관객 유치. 구조는 지붕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 350km의 강철 선 지붕위 4,253개의 조립식틀 위에 1,056,000개의 타일이 배열, 지붕의 무게는 27,230톤이고, 전체 무게는 161,000톤에 이르는 이 건물을 바다 밑 25m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 전체 넓이는 2.2헥타이고 건물자체는 1.8헥타임. 콘서트홀(2,690석), 오페라 극장(1,547석), 드라마극장(544석), 연극관(398석),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버 브리지(Harbour Bridge)



- 1932. 3.19 개통되었고, 시드니 거주자들은 이를 "큰 옷걸이"라고 부름.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



면과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A\$5천만, Arch 부문 수리 예산 연간A\$5백만임.

○ 시드니항



- 항구는 Middle Harbour (입구에서 서북쪽), Port Jackson (입구에서 하버 브리지 구간), Parramatta River (하버 브리지 서편 내륙 방향), Lane Cove River (하버 브리지 서북쪽), Iron Cove (하버 브리지 서남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이 중심수역(main harbour)임. 호주이민 및 식민역사가 1778년 동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간만의 차도 미미(107cm),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모래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 가능 (준설 불필요)함. 하수도 외해 부근에 집적, 오수여과처리 후 외해로 방출

○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 시내 중심부에 위치,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음. 1816년에 설립됨. 면적은 약 54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공원으로 애용됨.

○ 세인트 메리 대성당(Saint Mary's Cathedral)



-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함.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음. 중세 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음. 성당의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임.



○ 하이드 파크(Hyde Park)

-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 됨.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함.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르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 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음.

○ 본다이 비치(Bondi Beach)

- 시드니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시드니 동쪽에 위치함. 백사장이 10km 정도 이어져 있으며 파도가 높기 때문에 서핑의 명소로 알려져 있음. 해변가를 따라 이어진 캠벨 퍼레이드에는 쇼핑센터,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매주 일요일에는 본다이 마켓이라는 벼룩시장이 열림.

○ 갭파크(Gap Park)

- 시드니 항만의 입구로 오랜 세월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절벽 바위에 수많은 틈이 생겨서 갭(Gap)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절벽 위의 마을과 해발 100미터 절벽에 굽이치는 파도가 장관을 이루고 있음. 호주 개척 시절 영국 죄수들이 자살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공원의 한쪽에는 1857년 침몰한 영국 함선이 남긴 거대한 닻이 보존돼 있으며 함께 수장된 선원을 기리는 추모탑을 볼 수 있음.

○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 시드니 서쪽 약 100km 소재(차량 1시간 40분 거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대협곡임.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임.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관광열차 등이 있음.

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관광열차 등이 있음.



※ 현지 주요 연락처

기타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한국 대사관	우경하 대사	+61 2 6270 4100	캔버라 소재
한국 총영사관	윤상수 총영사	+61 2 9210 0201	시드니 소재
경찰(범죄신고)		000	
응급 구조대		000	
병원 응급실		+61 2 9282 7111	
대한항공	서교철 지사장	+61 2 9262 2041	시드니 소재
아시아나항공	김영섭 지사장	+61 2 9767 4346	시드니 소재
퀀타스(Qantas)항공	-	+61 13 13 13	-
콜택시(St. George Cabs)	-	+61 13 21 66	-
콜택시(Legion Cabs)	-	+61 13 14 51	-

무역관 연락처

구분	성명	전화
시드니 무역관 Suite 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2000 Ph: 02) 9264-5199 / Fax: 02) 9264-5299	서광석 관장	+61 413 388 282
	최정락 부관장	+61 421 646 928
	이지원 과장	+61 421 312 626
멜버른 무역관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3004 Ph: 02) 9264-5199 / Fax: 02) 9264-5299	이정훈 관장	+61 410 511 407
	황성운 과장	+61 404 450 322

/끝/



www.kotra.or.kr